

고추장 체지방 개선효과 세계가 '인정'

순창 '장류 기능성 규명' 입증 논문 국제영양학회지 뉴트리언츠에 등재 허리둘레 줄고 콜레스테롤 등 감소

한국 전통 장류인 고추장의 체지방 개선 효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순창군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이하 진흥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I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가 지원하는 '장류 기능성 규명(안전성 모니터링)사업'을 통해 원광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한이름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고추장의 체지방 개선 효과를 입증한 연구논문을 저명한 국제

영양학회지인 뉴트리언츠(Nutrients : 2022, 14, 2783)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논문의 주제는 '체중 및 비만 성인에게 미치는 전통·공장식 고추장의 항비만 효과: 무작위 대조군 연구 (Anti-Obesity Effects of Traditional and Commercial Kochujang in Overweight and Obese Adult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이용하여 고추장에 분포하는 유익균의



뉴트리언츠에 공개된 논문. (사진=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제공)

함량이 높은 제품과 유익균의 함량이 적은 제품, 공장식 제품을 선별하고 파시합자 60명을 대상으로 고추장의 체지방 개선 효과에 대한 인체효능평

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모든 시험군에서 허리둘레 및 Tota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과 함께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혈중 지방 성분인 트리글리세리드(Triglyceride) 수치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고추장의 섭취가 내장지방 함량을 감소시키고 혈중 지질 농도를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증명해낸 것이다. 전통 고추장의 체지방 개선 관련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왔지만, 주로 고추장의 원료나 캡사이신과 같은 고추의 특정 성분을 주제로 다루었다. 고추장의 효능에 관한 연구가 정식 논문의 형태로 해외 학술지에 등재된

경우는 흔하지 않아 이번 전통 고추장 연구논문 등재는 한국 장류의 우수한 가능성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도연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장은 "이번 논문 등재는 전통 고추장의 체지방 개선 효과의 과학적 근거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그동안 막연하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한식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쾌거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전통 발효식품이 안전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갖는 식품임을 과학적 증명에 장류 소비자인식 제고와 확대 및 글로벌 식품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기자



고창농협, 올 상반기 클린뱅크 '금' 인증 달성

고창농협(조합장 유덕근)은 2022년 상반기 농협중앙회가 인증하는 클린뱅크 '금' 등급을 인증받았다. 클린뱅크는 농협중앙회가 농·축협 자산건전성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인증기준(연체비율, 고정이체비율, 대손충당금비율, 손실흡수율 등)에 따라 금, 은, 동 3단계로 인증하고 있으며 5년간 '금' 인증 달성 시 그랑프리 등급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고창농협이 2022년 6월말 기준 상호금융대출금 잔액 3,406억원, 연체비율 0.17%, 고정이체비율 0.18%, 대손충당금 적립율 147.9%, 손실흡수율 1.263% 등 양호한 실적을 달성한 결과이다.

고창농협 유덕근 조합장은 "코로나 19 재난상황, 금리상승 등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채권관리를 통해 클린뱅크 금 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철저한 여신심사 및 채권 사후관리를 통해 자산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에서 생산한 쌀 전주 시민이 소비토록'

전주농협, 올 1차 임시총회 쌀 팔아주기 캠페인도 전개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3일 전주농협 대회의실에서 대의원과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이사(8월 19일 만료) 2명과 사외이사(9월 6일 만료) 2명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상임이사에는 오태식 현 상임이사(신용)와 오세일 현 상임이사(경제)가 재선됐으며, 사외이사에는 양현섭씨와 최정숙씨가 선출됐다. 이번에 선출된 상임·사외 이사들의 임기는 각기 임기만료 일일부터 2년간이다.

임시총회 후에는 최근 쌀 소비 감소 등에 따른 급격한 쌀 가격의 하락과 21년에 수매한 벼의 판매 처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전주시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전주 시민과 도내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전주쌀 팔아주기' 캠페인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전주농협 앞에서 집결하여 시청 앞 광장까지 행진한 후 진행했다. 임인규 조합장은 "전주농협은 21년 산 벼 7만여 포(40KG)를 처분하지 못해 50여일 후 수확하는 2022년산 벼를 보관할 참고 여석이 없다"며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주쌀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김재훈기자



전주농협과 도내 행정기관 등이 3일 '전주쌀 팔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한 뒤 전주 시청 앞 광장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 스마트팜 시장 선도기업 육성 | 농식품부, 수출 활성화 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서울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스마트팜 해외시장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심, 대동농기계, 이수화학, 판한농, 판앤랩, 그린랩스, 엔싱 등 스마트팜 관련 주요 12개 업체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ITA), 스마트팜산업협회 등 관계 기관이 함께 했다. 농식품부는 카자흐스탄, 베트남에 스마트팜 데모 온실을 조성하고, 외국

관련 등 정보 제공과 해외 구매자 발굴·매칭, 수출상담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는 기술협력을 통해 사막기후 적응형 온실모델을 개발했다.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기자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최근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력에 힘입어 해외에서도 한국형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수출

시장으로 보폭을 넓힐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중동 등 거대 시장으로의 진출은 우리 스마트팜 업계에게 기회가 분명하다"며 "기자재 산업, 스마트팜 수출 등에 있어 기술력을 지닌 대기업의 역할과 수출을 선도할 프리비(FRIVA)와 같은 일류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해 확산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프리비는 세계적으로 스마트팜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대표기업 중 하나다. 정부는 국내 스마트팜

기업이 ITC 기술과 농업을 융합해 해외 스마트농업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팜 업계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스마트팜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UAE와 총 2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엔싱은 최근 UAE에서 재배 시험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농장 가동과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농심은 오만과 2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시험 프로젝트를 계약하는 등 신 시장 개척을 위한 업계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뉴시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